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폭력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바오로딸 도서선교

- 일시: 2월 9일(게인즈빌), 10일(잭슨빌 본당) 미사 전후
- 장소: 카페테리아(게인즈빌), 본당 정문앞 (잭슨빌)
- 바오로딸 수녀들께서 책/CD/DVD를 전시/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

※ 성모회원 대상 영상피정: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 일시 및 장소: 2월 10일 오후 1~3시, 잭슨빌 본당
- 주제: 하느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체험하여 기쁨과 행복을 되찾고, 성모회원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살며 이 기쁜 체험을 이웃에게도 신명나게 전하게 한다.

[잭슨빌]

- 미사후 2018년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 점심식사후에 구정 윗놀이 및 빙고게임을 있습니다.
- 신부님 한국방문 (2/12~3/7) 동안 미사집전은 김치신부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게인즈빌]

- 오늘 미사후 설날 맞이 전체 식사가 카페테리아에서 있습니다.
- 다음주 금요일(2월 8일) 평일미사가 있습니다.
- 2018년 세금보고 서류 필요하신 분은 영문이름/주소/금액을 재정부장(이영순 프란체스카)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무금	건축헌금	기타	총계
게인즈빌	\$188.01	\$200	-	-	\$388.01
잭슨빌	\$219	-	-	-	\$219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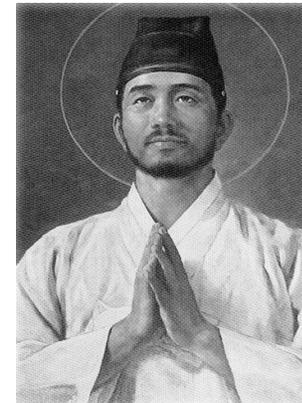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결정적인 구원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이사가 예언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듣는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은총의 메시지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도 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례는, 하느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제쳐 놓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은 나자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당신의 갈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배척받고 돌아가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미리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신자라는 사실에 머무르다 보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행하는 데 오히려 무뎠을 수도 있음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4 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1.4-5.17-19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화답송] 시편 71(70).1-2.3 과 4 7ㄱ.5-6 7ㄴ.15 ㄴㄷ과 17(◎15 ㄴㄷ 참조)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12.31-13.13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4.21-30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2/2)	최건화 안젤라	백현 가브리엘	백준 빈첸시오	
	잭슨빌 (2/3)	한상신 디나	김명기 미카엘	이재민 토마스	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2/9)	신미영 미카엘라	황현철 라우렌시오	황승민 이나시오	
	잭슨빌 (2/10)	서정원 헬레나	렉시 베로니카	최차숙 마리아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52	551	156	342
잭슨빌	46	212	153	172